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관점에서 본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사회통합*

이현주**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과 한반도 |
| II.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과 한반도 사회통합에 대한 이
론적 접근 | 사회통합
IV. 결론 및 시사점 |

| 논문요약 |

한반도는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남한과 북한 사회가 분단 이후 형성된 서로에 대한 편견으로 객관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의 의식과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켄 윌버의 통합사상 관점에서 북한의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을 분석하였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은 자발적 성격인 '체제충성성', '체제신뢰성'과 규범적 성격의 '체제우월성', '체제우위성'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통합을 이루는 통합사상은 가장 높은 사상의 발달단계로 볼 수 있으며 자발적 성격은 규범적 성격보다 다소 높은 단계이나 통합사상에 이르지 못한 발달의 단계로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형성과정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성격'은 주체사상

* 본 논문은 '2016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북한의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사회통합사상: 켄 윌버의 통합사상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전문위원 겸 고려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강사.

의 '수령관'과 '10대 원칙'에 의해서 강제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형성된 '자발적 성격'보다 낮은 단계이다. 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존적인 상태는 자율적인 상태의 하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율적인 상태는 통합적인 상태의 하위단계라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특성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높은 발달 단계의 통합심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주제어: 켄 윌버, 북한, 집단정체성, 한반도, 사회통합

I. 문제의 제기

한반도는 정치적 통일과 사회통합을 앞두고 있다. 사회통합은 파슨즈의 지적처럼, 사회의 공통적 가치가 사회체계의 구조적 요소 안에 제도화되고, 공통의 가치 모범과 행동 지향이 내면화될 때 성취된다. 이러한 공통의 가치는 뒤르껴이 말하는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을 구성한다. 가치적, 규범적 표준들이 효과적으로 내면화되어 사회의 성원들은 집합의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유사하게 행동한다(프란케나 1987, 120).

기든스는 사회통합의 개념구조를 사회적 통합과 체제통합으로 양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이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들 간의 상호 작용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자들의 다양성과 평등성 및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통합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체제의 지배정당성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말한다(전숙자 1997, 83). 사회통합을 무시하고 체제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사회를 남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준다(전태국 2000, 118). 특히 제도적 법률적 규범을 제시하였던 유일사상체계가 폐기된다면 이로 인해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 경험은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도의 통합에는 성공하였으나 진정한 가치통합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전성우(1997, 20)는 동서독 사회통합 과정을 분석하여 사회주의체제가 사회주의적 근대화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동독인들이 서독의 가치에 편입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손기웅(2007, 15)은 통일 논의의 사회통합 요소를 강조하면서 동서독의 사회문화 교류의 시사점을 남북한 통일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윤철기(2014)는 독일 통일 25년을 고찰하면서 내적 통합의 미해결 과제를 지적하였다. 최순중(2014, 288)은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의 의미를 정치경제 제도가 아닌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독일 통일 이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호 불신과 갈등의 후유증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 이후의 갈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하였고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정치·제도적인 통일 논의보다 사회·문화 통합을 통한 내면적인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과제가 장시간에 걸친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심리적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심리적 갈등은 사고, 가치, 생활습관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편견으로 인한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편견으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갈등 표출이 예상된다. 통일은 다가오고 있으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로 북한을 조망하고 있다.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에게 있어서 북한에 대한 편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70년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집단정체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강원택 2007, 15). 한반도는 이질화되어 있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장점을 수용하며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사명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미

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념을 넘어서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북한 사회는 주체사상을 국교화한 종교 사회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종교의 성소에 해당하는 김일성 혁명 사상연구실을 45만 개나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병로 2000).

그러나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의 결과 형성된 주민들의 심리적 특성이 한반도 통일과 이후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게 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민성길·전우택 1995; 전우택·민성길 1996; 전우택 1997a; 전우택 1997b; 민성길 1998; 전우택 2000; 조정아 외 2010; 이현주 2011a; 2011b; 2012; 2013; 2015a; 2015b). 통일 이후 한반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이현주 2015a; 2015b; 2016a).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위해서는 통합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이현주 2016b). 켈 월버(2007, 121)의 영원의 철학과 홀아키적 우주론은 종교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 학문의 통합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사상적 위치 등을 확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심리학은 말 그대로 인간 의식과 의식의 행동 표현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모든 갈래를 통합하고, 과연 인간의 의식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논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월버(2008a, 17)는 영원의 철학(물질-몸-마음-혼-영에 이르는 인간 발달의 총체적 측면을 다룬 고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지혜)을 보다 정교화하고, 그 위에 심리학, 사회학, 진화학, 생물학 등 근대의 학문이 밝혀낸 성과에 더하여 다양한 동양사상의 핵심과 서구 철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의 이론을 취합하였다.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윤철기는 북한주민들은 경제위기

와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또한, 북한 노동계급의 마음체계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적 정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윤철기 2016, 43).

북한 노동계급의 마음체계를 ‘복합적’ 정체성으로 이해한 이유는 북한의 정체성이 기존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집단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과 분석틀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통합심리학자인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적 접근으로 북한의 집단정체성을 분석하고 한반도 사회통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에 근거해서 생기는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구성되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정체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Tajfel 1982). 사회정체성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지지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사회정체감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상당 부분 반영한다(정태연 2000).

미드(Mead)와 고프만(Goffman) 등에 의하면 모든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한다(박종일·김은정 2008, 185-188). 구성주의에 의하면 ‘집단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집단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유사한 조

건에 놓인 다수의 행위자들과 동류의식을 공유하게 될 때 집단은 새롭게 탄생하고 그 고유의 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Rogers & Cooper 2000, 11).

집단정체성은 의미 공유에서 비롯되는 성원들 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개별성보다 공통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각 사회집단이 나 개인은 전체 집단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로 동일시하며, 그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된다. 가치관이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면 사람들은 이 가치관에 알맞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부여되고 기여되는 역할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정체성 모두는 한 사회가 지닌 가치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성을 내면화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조정아 외 2010, 80).

한반도 미래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제도의 통일보다는 정서적인 가치적인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체제통합이 경제관계나 권력구조 및 제도들의 통합이라면 사회통합은 물리적 체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일체감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이질화를 전제로 한 상호 간의 유대감과 의존도를 강화해 나아가는 통합 과정이다. 국가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 사이에서 조화로운 공존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하는 데 구성원들의 일체감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확보되어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최순중 2014, 288).

결국 동질한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동질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정의와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유일사상 10대 원칙)’의 결과 형성된(김병로 2000)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이현주 2015b; 2016a; 2016b). 유일사상체계의 이론적 기초는 혁명적 수령관(1970년대 초)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1986)이라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는 당 창건 초기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유일사상체계’는 전당을 김일성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모든 당원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위에 굳게 묶어세워 혁명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당건설의 기본원칙이다. 통상 당의 유일사상체제로 불리며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전체 주민을 김일성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김일성에 의한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된 1967년부터 추진됐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선임되면서 주체사상을 체계화했으며, 김정일 전기에 따르면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 이와 함께 ‘혁명적 수령관’의 연장에서 후계자론을 제시함으로써 후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당내 핵심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소위 ‘당중앙’이라는 호칭이 붙으면서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인되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선임되면서 주체사상을 체계화했다. 김정일 전기에 따르면 1974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다. 이와 함께 ‘혁명적 수령관’의 연장에서 후계자론을 제시함으로써 후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이종석 2000, 507).

김정일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 선포한 것이었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한 다음, 1974년 4월 14일 그 실천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는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인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은 현시대와 공산주의의 미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일사상체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의 유일적 지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결정적 의도는 김일성의 유일사상을 김정일이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김창희 2013, 193).

결국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에 의한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된 1967년부터 추진됐었으며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당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유일사상체계의 본질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

2013년에 북한은 1974년 4월 14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전면 개정했다. 명칭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서문 및 10조 65항에서 서문 및 10조 60항으로 조정되었다. ‘10대 원칙’은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이다(오경섭 2013, 14). ‘10대 원칙’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신뢰로 요약된다. 북한에서 ‘10대 원칙’ 위반은 연좌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10대 원칙’은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능 수행한다. 김일성 독재체제가 확립되면서 ‘10대 원칙’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었다. 당이 법과 인민 위에 있고, 수령이 당위에 군림하는 체제이다.

북한은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 결과 대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3대 세습을 이루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정체성은 의미 공유에서 비롯되는 성원들 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개별성보다 공통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각 사회집단이나 개인은 전체 집단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로 동일시하며, 그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된다(조정아 외 2010, 80).

푸코는 ‘특정지식 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에 의해 집단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푸코는 진리란 ‘하나의 진술이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용되고 작용하도록 만드는 질서화된 절차의 체계’라 보았다. 권력과 지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권력을 정당화하는 지식은 물론이고 저항하는 지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진리라 인정받았다면, 그 자체가 가진 정교함이나 객관적 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정치적 효과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든 1991, 160).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특정지식’은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북한 체제와 그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신뢰’로 요약된다. 북한에서 ‘10대 원칙’ 위반은 연좌제 처벌을 받게 된다(현성일 1997, 1-47). 이러한 ‘10대 원칙’은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일성 독재체제가 확립되면서 ‘10대 원칙’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었다.

북한은 당이 법과 인민 위에 있고, 수령이 당위에 군림하는 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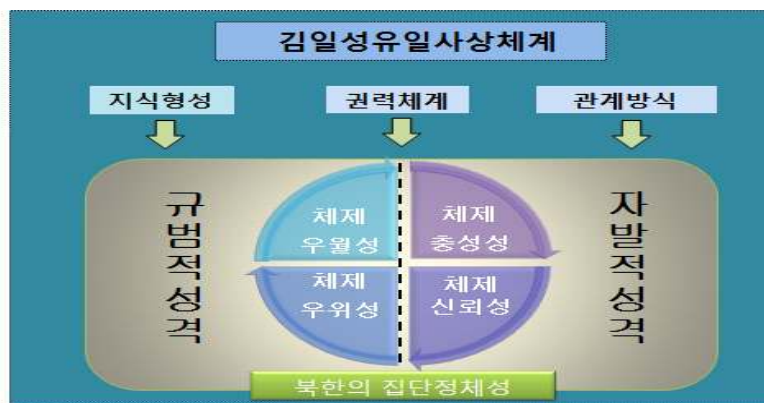
‘10대 원칙’의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충성과 복종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김일성 독재체제로 변형되면서 충성의 대상이 사회주의 전체 인민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발적 성격’인 ‘충성성’과 ‘신뢰성’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에서도 다른 사회주의와 유사하게 지주의 재산을 압수하여 가난한 소농에게 분배하였다. 이때 대다수의 소농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며 사회주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이현주 2011a, 60).

북한에서 지도자는 ‘공산사회를 완성하고 인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대적 능력자’라는 신뢰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아버이’로서 섬김을 받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족인 북한에서 개인은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이현주 2011a).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명령을 어기는 자, 또는 지도자와 대립하는 자를 ‘타자’라 인식하게 된다.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의 ‘특정 지식 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집단정체성을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모형은 <그림 1>과 같다(이현주 2015b; 2016a).

<그림 1> 북한의 집단정체성 모형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 결과¹⁾ 그 특성은 ‘자발적 성격’의 ‘충성성’, ‘신뢰성’과 ‘규범적(또는 강제적) 성격’의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이현주 2015b; 2016a). 또한,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은 북한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내면화란 개인 스스로가 옳게 되려는 욕구에 의해 타인의 가치나 신념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면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사람의 신뢰성이다.

특히 남한 정착기간이 5-10년인 집단의 ‘충성성’과 ‘신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남한 정착기간이 5-10년인 집단이 남한사회에 대해 신뢰감을 충분히 형성하였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서 형성된 ‘충성성’과 ‘신뢰성’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체제충성성은 2년대 졸업자(M=2.9476), 고등중학교 졸업자(M=3.0975)보다 인민학교 졸업자(M=3.706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인민학교 졸업자의 ‘충성성’, ‘신뢰성’,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올라갈수록 집단정체성 요인이 하락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 집단의 ‘충성성’, ‘신뢰성’,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이 가장 낮았다(이현주 2012, 170).

‘충성성’, ‘신뢰성’,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이 학력과 반비례하는 현상을 북한의 상급학교 진학율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중학교 진학율은 100%에 달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북한의 재학인구는 539만 명으로 5세 이상 인구의 24.1%를 차지했다. 이는 남한(2005년)의 6세 이상 재학인구 비율(24.7%)

1) 조사는 2010년 5-7월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남성 31.0%(88명), 여성 67.6%(192명)이며, 기혼 57.4%(163명), 미혼 32.4%(92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6%(67명), 30대가 20.4%(58명), 40대가 19.0%(54명), 50대가 12.3%(35명), 60대 이상이 23.6%(67명)이었다.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도시가 56.3%(160명), 농촌이 32.7%(93명)이며, 출신 시도는 함경북도 49.6%(141명), 양강도 11.3%(32명), 자강도 3.9%(11명), 함경남도 10.2%(29명), 평안북도 3.5%(10명), 평안남도 4.9%(14명), 평양 6%(17명), 황해북도 6%(17명), 황해남도 1.4%(4명), 강원도 2.5%(7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북한 최종학력은 인민학교 졸업자가 3.9%(11명),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56.3%(160명), 전문대학 졸업자가 14.8%(42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0.9%(31명)이었다.

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학율은 유치원 취학연령인 5세가 88%, 소학교(6-10세)와 중학교(11-16세) 진학율은 16세(93.9%)만 제외하면 연령별로 모두 100%였다. 10세 이상 인구 대부분은 문자해독이 가능하며 2008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문맹자는 거의 없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17세부터는 진학율이 36.8%로 약화하고 22-23세에는 7.7%로 저점에 달했다(『연합뉴스』 2011/03/22).

이처럼 고등교육 진학률이 낮은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특성이 감소하므로 북한체제가 북한주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이현주 2016a, 301).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 연구는 북한사회를 현상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변화하는 존재의 본질을 언어로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으나 현상학적으로 관찰되는 존재의 일관된 특성은 존재의 본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특성인 ‘체제충성성’, ‘체제신뢰성’, ‘체제우월성’, ‘체제우위성’은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특성이므로 북한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2.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에 대한 이해

켄 윌버는 통합비전과 통합심리학을 제시하였다. 그는 현대 심리학의 뿌리는 영적 전통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정신 자체가 영적 원천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우리는 본능이 아닌 영(Spirit)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윌버(2008a, 10)는 이상적인 심리학 연구는 신체에서 마음, 혼에 이르는, 잠재의식에서 자의식, 초의식에 이르는, 그리고 수면에서 반각성, 완전한 각성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윌버(2008a, 11)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가 지구라는 더 크고 높은 개체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지구라는 더 크고 높은 개체적 영에 속해 있다. 그리고 지구체가 창조물의 체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지구의 영은 창조물의 모든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지구의 영은 지구의 모든 영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이들을 높이 융합한 더 높은 개별적 의식체라

는 것이다. 지구의 영은 신성한 영의 일부이며, 신성한 영은 하나의 전체이다. 즉 우주의 모든 의식을 유지하며 각각의 개별 의식을 더 높게 혹은 최고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구는 우리의 신체를 우주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주와 연결하고 우주에 편입시키듯이 우주의 영과 고차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연결을 갖는다.

월버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홀론이라고 설명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의 전체는 내일의 부분이 된다. 심지어 '온우주'의 '전체(the Whole)'마저도 단지 언제까지나 다음 순간의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다. 전체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시점에서든 전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전체/부분만 영원히 있다고 할 수 있다(켄 월버 2005, 53).

월버는 온우주의 계층구조(hierarchy) 설명을 위해 '홀라키(holarchy)'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자연적 계층구조는 단순히 증가하는 전체성의 순서다. 이를테면 소립자에서 원자로 세포에서 생체기관으로, 혹은 글자에서 단어로 문장으로 문단으로의 계층적 구조 같은 것이다. 어느 한 수준의 전체는 그 다음 수준의 전체의 한 부분이다(켄 월버 2005, 64). 사물에서 생명에 마음에 이르는 모든 성장과정은 자연적 홀라키들에 따라서 전일성과 전체성의 - 즉 새로운 전체의 부분이 되는 전체의 - 증가순서에 따라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적 계층구조 혹은 홀라키인 것이다(이기상 2010, 40).

월버는 자연적 홀라키 안의 어느 홀론이 그 위계를 찬탈하여 전체를 지배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세계의 병리적 또는 지배자적 계층구조로 변화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암세포가 신체를 지배한다든지, 혹은 파시스트 독재자가 사회체제를 지배한다든지, 또는 억압된 자아가 유기체를 지배한다든지 등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모든 진화적이고 발달적인 패턴은 홀라키화에 의해, 즉 전체성과 포괄성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른 과정에 의해 진행된다고 본다. 그는 더 높고 더 깊은 차원은 만약 그대로 두면 분리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고립되는 부분들을 정합적 통합체로 통일하고 연결하는 원리, 혹은 '접합체' 혹은 패턴을 제공한다고 말한다(켄 월버 2005, 67).

월버는 홀라키적 계층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온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고대 동서양의 지혜와 근대 서구의 과학들(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그

리고 우주적 영을 다루는 동서양의 신비주의까지 포함한 지식의 대통합을 시도한다. 그는 온우주는 네 가지 근본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 네 가지가 통합적으로 온우주를 구성하는 차원이며 구조며 계기라고 해서 그것을 'Quadrant', 즉 '사상한(四象限)' 또는 '4분면'이라고 한다. 먼저 개인적 차원이며 내면인 '나'(자아 및 의식),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외면인 '그것'(뇌 및 유기체)이 상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집합적 차원이며 내면인 '우리'(문화 및 세계관), 그리고 집합적 차원의 외면인 '그것들'(사회 시스템 및 환경)이 하층구조를 이루고 있다(켄 윌버 2005,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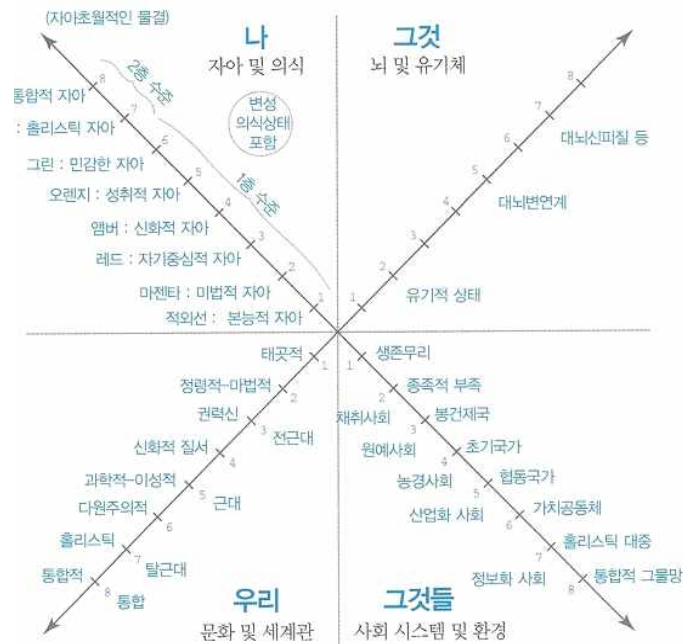
'나'가 다른 사람의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모든 '나'가 여럿으로 구성된 '우리'의 일원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의식은 개인의식이 아니라 개인의식을 포함한 집단의 의식이며 주관적인 자각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각을 포함한 상호 주관적인 자각이다.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면 또는 밖에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우리'의 내면에 해당하는 4분면을 종종 '문화적' 차원(또는 그룹의 내적인 자각, 그룹의 세계관, 그룹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느낌 등)이라고 부르며, 그것의 외면인 '그것들'에 해당하는 4분면을 사회적 차원(또는 시스템 이론 같은 3인칭 과학이 다루는 그룹의 외적인 행태나 행동양식)이라고 부른다(켄 윌버 2008b, 70).

윌버는 여기에서 '나'와 '우리'의 외면에 해당하는 '그것'과 '그것들'이 모두 결국은 밖에서 접근하는 객관적인 '그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일반적인 영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네 개의 상한을 '나', '우리', '그것'이라는 '3대 가치'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나'의 영역은 미학, '우리'의 영역은 도덕, '그것'의 영역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선, 진 혹은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혹은 자기, 문화, 자연 혹은 예술, 도덕, 과학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3대 가치인 사상한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켄 윌버 2008a, 22).

윌버는 인간의 발달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적어도 3개의 폭이 넓은 호(弧)를 그리며 심리적으로 발달해 나간다고 보았다. 그것을 전(前)개인적-개인적-초(超)개인적, 또는 전이성적-이성적-초이성적, 또는 잠재의식-자아의식-초의식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각 호 안에

포함된 단계들은 이전 단계를 품고 초월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계속 전개된다. 새로운 수준이 펼쳐질 때마다 그것은 이전 수준을 품고 전개된다. 발달(development)은 이렇게 품고 전개(envelopment)된다.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세포로, 세포에서 유기체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전 수준을 품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들이 축적되는 효과가 생기는데, 그것이 곧 통합이다. 그래서 감싸고 펼쳐지기, 품고 발달하기, 포함하고 초월하기, 보존하고 부정하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유실되지 않고 모든 것이 보존된다(켄 윌버 2014, 129).

<그림 2> 인류에게 초점을 맞춘 AQAL 4상한



• 켄 윌버(2014, 154)

윌버는 종교와 과학의 통합적 토대하에서 동서양종교를 아우르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패턴을 제시하는데, AQAL은 ‘모든 4분면, 모든 수준, 모든 라인, 모든 상태, 모든 타입(all quadrants, all levels, all lines, all states, all types)’을 간략

하게 줄여서 표시한 것이다. 4분면, 수준, 라인, 상태, 타입, 이 다섯 가지가 통합적 접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요소이다. 켄 월버는 고대의 사면에서부터 현대의 인지과학에 이르기까지, 인간 성장에 관해 알려진 모든 시스템과 모델을 사용해서 이 5가지 중요한 인자(因子)를 뽑아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4분면’은 자기, 문화, 자연이며, ‘수준’은 몸, 마음, 영이다(켄 월버 2008b, 131). 또한 그는 종교와 과학의 통합적 토대하에서 동서양 종교를 아우르는 시도를 하였다(켄 월버 2007, 121).

월버의 영원의 철학과 holistic 우주론은 종교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 학문의 통합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사상적 위치 등을 확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월버의 4상한에 의하면 좌상상한의 자아 및 의식은 1단계의 본능적 자아, 마법적 자아, 자기중심적 자아, 신화적 자아, 성취적 자아, 민감한 자아의 단계별로 성장하여 2단계의 홀리스틱 자아, 통합적 자아로 발달 전개한다는 것이다. 좌하상한의 문화 및 세계관은 전근대에서 근대를 거쳐 탈근대를 지나 통합에 이르는데 태곳적, 정령적-마법적, 권력신, 신화적 질서, 과학적-이성적, 다원주의적, 홀리스틱, 통합적 단계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우하상한인 사회 시스템과 환경은 채취사회, 원예사회, 농경사회, 산업화 사회, 정보화사회로 발달하는데 생존무리, 종족적 부족, 봉건제국, 초기국가, 협동국가 가치공동체, 홀리스틱 대중, 통합적 그물망으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월버의 4상한에 따른 북한 연구 분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켄 월버의 4상한에 따른 북한 연구 분야

	내 적	외 적(It)
개 인 (I) 적	(좌상상한) 자아 및 의식 : 북한집단주의심리, 주체심리	(우상상한) 뇌, 유기체 : 주체물리학, 주체생물학
집 단 (We) 적	(좌하상한) 문화 및 세계관 : 주체사상, 주체문학, 주체세계관	(우하상한) 사회시스템 및 환경 : 당정치체제, 경제체제, 군사체제

Ⅲ.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과 한반도 사회통합

1.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관점에서 본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켄 윌버는 이전 수준을 품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들이 축적되는 효과를 통합이라 보았다. 따라서 감싸고 펼쳐지기, 품고 발달하기, 포함하고 초월하기, 보존하고 부정하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유실되지 않고 모든 것이 보전되는 것이 곧 통합이다(이현주 2016b, 105).

윌버가 제시하는 통합심리학은 통합심리의 각 발달라인을 포함하면서 가장 상층의 단계에 도달해 있는 사상이어야 한다. 즉, 욕구, 세계관, 인지, 가치관, 자아정체성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사상을 통합심리라 하였다. 한반도에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존재하지만 모든 사상과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심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진하다(이현주 2016b, 113).

본 연구에서는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요인을 AQAL(4상한)의 분석틀을 통해 발달 단계를 특성을 분석하였다. 윌버의 통합심리의 발달 단계에 이르려면 피아제와 오로빈도의 인지 발달단계에서는 ‘수퍼마인드’, ‘오버마인드’, ‘직관적 인지’ 이상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인 ‘충성성’, ‘신뢰성’은 ‘밝아진’, ‘총체적’, ‘낮은 비전’, ‘지구차원’의 발달단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집단정체성의 ‘규범적 성격’인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은 ‘형식조작’, ‘구체적 조작’, ‘개념적 조작’의 하위의 발달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메슬로의 욕구 발달단계는 윌버의 통합심리가 ‘자아초월’, ‘자아실현’의 발달단계인데 ‘자발적 성격’은 ‘자기존중’의 발달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규범적 성격’은 ‘소속감’, ‘안전감’의 낮은 발달단계에 있다.

가치관에서는 윌버의 통합심리가 ‘전체적 세계관’, ‘유연한 흐름’, ‘인간적 유대’의 발달단계를 보이는데 ‘자발적 성격’은 ‘인간적 유대’를 보이며, ‘규범적 성격’은 ‘진리의 힘’, ‘권력신’, ‘부족정신’의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자아정체성의 발달은 통합심리에서 ‘초월적 자기’의 단계인데 ‘자발적 성격’은 ‘구성적 자각’, ‘자율적’, ‘개인적’ 발달단계를 보이며, ‘규범적 성격’

은 ‘양심적’, ‘순응적’ 단계로 낮다. 겹서의 세계관의 발달은 통합심리에서 ‘통합적’ 단계인데 ‘자발적 성격’은 ‘합리적’ 단계이며, ‘규범적 성격’은 ‘신화적’으로 낮은 발달단계이다.

켄 윌버의 통합심리적 분석의 결과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규범적 성격’은 가장 낮은 발달 단계에 있으며, ‘자발적 성격’은 그 다음 단계의 발달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범적 성격’이 가장 낮은 단계의 발달인 이유는 ‘규범적 성격’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자발적 성격’이 체제 성립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데 반해 ‘규범적 성격’은 주체사상의 ‘수령관’과 ‘10대 원칙’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강제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율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의존적인 발달 상태는 자율적인 발달 상태의 하위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율적인 발달 상태는 통합적 발달 상태의 하위단계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켄 윌버의 통합심리와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발달라인		심리	켄 윌버의 통합심리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자발적 성격 (충성성, 신뢰성)	규범적 성격 (우위성, 우월성)
자아 및 의식 -개인내면 (좌-상 상한)	인지 (피아제/ 오로빈도)	수퍼마인드 오버마인드 직관적	밝아진 총체적 낮은 비전 지구차원	형식조작 구체적 조작 개념적 조작	
	욕구 (매슬로)	자아초월 자아실현	자기존중	소속감 안전감	
	가치관(그레이 브스/스파이럴 다이너믹스, 웨이드)	진체적 세계관 유연한 흐름 인간적 유대	인간적 유대	진리의 힘 권력신 부족정신	
	자아정체성 (뢰빙거, 쿱-그로이터)	초월적 자기	구성적 자각 자율적 개인적	양심적 순응적	
정체성 -집단-내면 (좌-하 상한)	세계관 (겹서)	통합적 다원적	합리적	신화적	

▪ 켄 윌버(2014, 129) 참고(본 논문의 ‘한’사상과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특성을 좌-상 상한과 좌-하 상한에 대입하여 재구성함)

<표 3> AQAL로 분석한 북한 집단정체성 발달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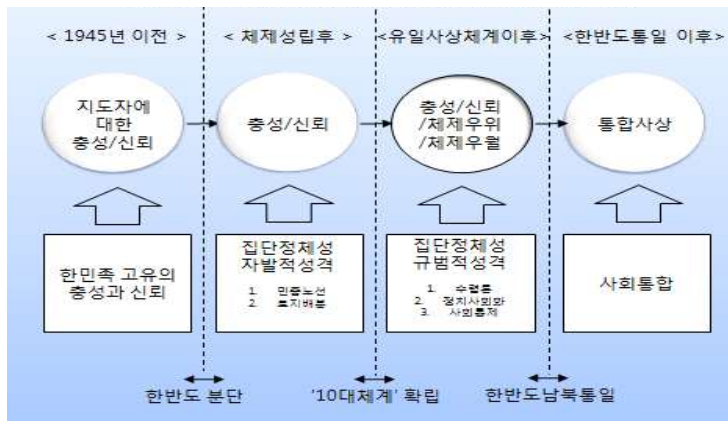
좌-상 상한 / 개인-내면(인지, 자아 및 의식)									
									규범적 성격 (우월성, 우위성)
									자발적 성격 (충성성, 신뢰성)
									켄 월버 통합심리
9	8	7	6	5	4	3	2	1	발달단계
									켄 월버 통합심리
									자발적 성격 (충성성, 신뢰성)
									규범적 성격 (우월성, 우위성)
좌-하 상한 / 집단-내면(문화 및 세계관)									

북한의 집단정체성이 통합심리의 발달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발달을 보이는 것은 북한 집단정체성 형성과정과 관련이 깊다. 북한은 당이 법과 인민 위에 있고, 수령이 당위에 군림하는 체제이다. ‘10대 원칙’의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충성과 복종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김일성 독재체제로 변형되면서 충성의 대상이 사회주의 전체 인민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인 독재체제의 사회는 발달단계에서 볼 때 분화되지 못한 폐쇄적 집단의 공동체이므로 통합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 정체성 형성과 변화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자발적 성격’인 ‘충성성’과 ‘신뢰성’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으나 ‘10대 체계’가 확립되고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면서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재체제가 강화되고 ‘자발적 성격’이 ‘규범적 성격’에 의하여 강하게 제지를 받기 때문에 자발성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난 이후의 북한주민 충성도 변화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사회주의체제 성립과정

에서 형성된 자발적 성격의 ‘충성성’과 ‘신뢰성’은 약해진 반면 규범적 성격의 ‘체제우월성’, ‘체제우위성’은 유지되고 있다(이현주 2012, 135-171).

<그림 3>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형성과 변화



반면,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북한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이다. 북한의 지도자에게 보여주었던 한민족 고유의 충성과 신뢰를 민족 전체의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때 한반도의 사회통합은 전망이 밝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나’, ‘우리’는 옳고 ‘너’, ‘너희들’은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은 독재와 같기 때문이다.

2.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과 한반도 사회통합

분단된 국가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는 서로 다른 사회체제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을 포함한 사회체제 전반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록우드(Lockwood 1964)는 ‘통합’을 사회통합과 체제통합으로 구별하였다. 하버마스(Habermas 1987)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체제통합을 화폐와 권력과 같은 ‘탈 언어화된 매개’로 정의하고 사회통합을 ‘의사소통으로 성취된 합의’로 정의하였다. 또한 화폐와 권력의 체계 규제적 구조가 상호 이해와 합의의 사회통합적 구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내적 식민화’라고 개념화하였다. 사회통합을 무시하고 체제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남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준다(전태국 2000, 118).

통일의 핵심은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체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정치적·법률적 통합이 비교적 단기적인 통합이라면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조한혜정·이우영(2000)은 통일 논의에 있어서 ‘체제통합’에 치중하여 ‘사회통합’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통일 연구를 비판하였으며, 남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 영역을 통한 문화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국현(2000)은 통합의 우선적 과제로 심리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반편견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배규한(2000)은 체제론적 시각의 통일 논의를 탈피해 관계론적 시각의 통합 개념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이질화의 정도를 언급하며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이 취약함을 제기하였다. 조한범(2004)은 남북한 사회화 문제에 있어 이질화 요인으로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가 서로 다른 근대화 과정을 거쳐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순중(2014)은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의 의미를 정치·경제 제도가 아닌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수직성, 긴급방어, 체제와 생활세계 간의 불일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남한 사회의 가치 기초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의와 내면화는 ‘사회적 수직성’의 지배 성격을 갖는다. 북한 주민들은 주변화되고, ‘근대로의 도약’을 위해 그들에게 남한의 중심적 가치에 무조건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자발성에 근거한 상호 주체성을 무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편에서 ‘저항’이 구조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오랜 격리로 인한 이방인적 낯섦과 체제의 각인에 의한 가치관의 상이가 통합의 출발 상황을 규정한다. 후견적인 부양국가의 전체주의적 독재에 의해 각인된 북한 주민들은 통일과정에서 일어나는

급속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급작스럽고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관습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관습이 사람들에게 의식되고 소중한 것으로 됨으로써, 시대의 물결에 반하여 오히려 공고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은 통일 후의 급격한 제도 변화의 상황에서 일종의 자기방어와 긴급방어의 행동으로써 과거의 북한체제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은 북한지역에 ‘체계’와 ‘생활세계’ 간의 불일치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생활세계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따라서 오직 느리게만 변화된다. 종전의 공산주의체제에 의해 각인된 ‘생활세계’가 통일 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체계’와 공존하게 된다. 말하자면 ‘비동시성의 동시성(Karl Mannheim)’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문화적 하부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형성은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변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이전의 태도, 관행, 가치 척도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작용하는 ‘히스테레시스 효과(Hysteresis-Effekt)’가 나타나 단기적인 동화 과정을 방해할 것이다(전태국 2000, 118-120).

70년 분단은 우리민족 5000년 역사에서 짧은 기간이다.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역사를 생각하면 한반도의 통일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것이다. 사회통합으로서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의사소통적 상호 이해를 통해 ‘내적 통일’을 성취한다. ‘내적 통일’이란 국가 질서의 가치 기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속감을 강화시키는 구속력 있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은 남한 사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전태국 2000, 120).

내적 통일의 완성이란 인생관, 심성, 기대치, 가치관, 정치적 태도 등 주관적 정서 및 의식의 관점에서 남아 있는 근본적 차이와 거리감을 극복하고 도달하는 정서적, 정신적 일치감이 형성된 상태이다. 따라서 문화정체성, 사회정체성, 역사정체성을 지닌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이 모두에 대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정서적, 정신적 범주를 공유하는 상태로서의 진정한 통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통합이란 각기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는 단위들이나 구성 성분들이 하나의 일관성이 있으면서 더

큰 구성 요소로 만드는 것이다(손기웅 2007).

따라서 통합된 체제는 그 구성 요소 간에 높은 상호 의존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가질 수 없는 체제 특성을 지닌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한 개인의 자아정체감 혼동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 차별과 이로 인한 집단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적 일체성을 회복하여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가치나 상호 이해를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한 사회의 인간은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관이 사회통합의 요소인 공동가치나 문화적 특성에 함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여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프란케나 1987, 121).

파슨즈에게 있어 가치 지향은 통합의 중심 명제이며, 공통가치, 공통문화의 전승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규범에서 사회통합의 기저를 찾고 있다. 또한 기든스는 사회통합의 개념구조를 사회적 통합과 체제통합으로 양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이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들 간의 상호 작용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자들의 다양성과 평등성 및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통합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말한다(전숙자 1997, 83).

분단장벽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통일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2개의 국가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통일이 특히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 사회적 적응 압력과 갈등을 제대로 볼 수 없다(전태국 2000, 16).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가치 혼란과 자아정체성, 동기, 태도, 갈등,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자본주의적 상업 문화에 대한 탐닉 등으로 범죄와 일탈행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기대 수준과 현실 간의 괴리, 남한주민들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차재호 2001, 11-12).

남북한주민의 집단갈등은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남한의 지역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지역갈등, 통일 후 북한에서의 구체제의 기득권 집단과 피해자 집단 간의 갈등, 통일 후 새로이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남북한 간의 지역 갈등이 중첩됨으로써 사회균열과 이질성이 심화될 수 있다(박영호 1994, 35).

파슨즈(T. Parsons)와 기든스(A. Giddens)는 사회통합의 전제로 공통의 가치 지향과 자발적이고 평등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다(전숙자 1997, 79). 파슨즈는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반도 통일 이후 조화로운 미래세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전제로 공통의 가치 지향과 자발적이고 평등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파슨즈는 공통의 가치 지향을, 기든스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상호 작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상이한 사회문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에 합의를 제공한다. 이질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장점을 서로 수용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통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합의와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특정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기대이며, 또한 한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체제의 지향이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숙자 1997, 79).

김일성은 헤겔-마르크스의 변증법에 반하는 새로운 변증법을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 부분으로써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 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령론'이다. 물질과 정신이 잘 조화된 이상적 인간이 바로 당의 '수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당의 수령이 지닌 이상적 상태를 "노동 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 영도자입니다. 인민 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 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한재만 1994, 87). 주체사상의 ‘인간존중사상’에서 출발하나(김병로 2015) 유일사상체계가 제시되고 ‘수령론’이 등장하면서 변형되어 1인 독재 체제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범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자발적 성격’이 약화되어 갔다(이현주 2012, 150).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규범적 성격’인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은 ‘우리’는 우월하며 옳고 ‘너희’는 열등하며 틀렸다’는 주장이 그 본질이다. 이러한 ‘규범적 성격’의 집단정체성은 사회주의 우월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사회통합으로서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의사소통적 상호 이해를 통해 ‘내적 통일’을 성취한다. ‘내적 통일’이란 국가질서의 가치기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속감을 강화시키는 구속력 있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은 남한사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반도 전체가 긍정적인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을 재발견하고 그들이 한반도 사회통합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통일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세대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한 개인의 자아정체감(identity) 혼동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체제의 통합보다 남북한 주민들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심화가 될 것이다.

한편, 양해리(2014, 84-85)는 민족적 가치와 지구적 공공성의 가치를 구분하고, 민족됨기를 사례로 들며 민족적 가치 이외에 지구적 공공성의 가치인 인도주의와 평화주의가 주요 운동이념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민족적 가치 또한 공동체 민족주의에 머물지 않고 시민민족주의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을 내세우거나 강조하는 관점의 통일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상

당한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 김영주는 통일이 갖는 의미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적 범주로만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주적 평화통일의 모델은 거부할 수 없는 당위이지만, 민족주의적 통일담론의 위험성이란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근대적 안보국가론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한다(김영주 2010, 10).

따라서 안보담론의 근본적 전환이 없이는 남북한의 통일이 자칫 민족주의에 입각한 부국강병의 논리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과거의 안보담론의 자장에서 벗어나 평화지향적 국가 정체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 환경, 민주 등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통일과정에서 공유되면서 통일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영주 2010, 11).

6·15담론을 주도하는 통일운동 세력에서 이러한 안보담론의 근본적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면 부국강병의 정책이 한반도 민중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구갑우 2007, 74).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의 공생, 더 나아가 세계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긍정적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담아내야 한다며 새로운 통일담론의 지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과 남북베트남의 통일의 교훈은 일방적으로 단일한 상태로 상대방을 강요하는 것은 통합을 이룰 수 없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다름은 공통의 것을 찾아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동시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전체는 풍성함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엘리트 형성과정에서 이념문제가 중첩되어 사회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수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과 진보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 간의 격돌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념의 투쟁은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와의 투쟁이고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자원 배분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권위, 가치와 정체성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이현주 2016a, 301).

자본주의가 개인 지향적인 사회라면 사회주의는 타인 지향적이다. 또한 남한이 서양의 가치체계를 여과 없이 수용한 반면 북한은 동양의 집단적 가치체계인 사회적 규범의 준수와 절제와 협동을 강조하여 왔다. 북한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인 충성과 신뢰는 한반도 미래세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이현주 2016a, 300). 남북한 정체성의 이질적 요인들이 남북한 통합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이질적 요소들은 통일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시킬 자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한 내의 분화된 가치관과 계층별 문화보다 북한 주민들이 내면화한 집단적 가치관은 통일 한국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IV. 결론 및 시사점

한반도는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회는 분단 이후 형성된 편견으로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어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 관점에서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심리적·사상적 기반을 다지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요인을 AQAL(4상한)의 분석틀을 통해 발달 단계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지, 욕구, 가치관, 자아정체성, 세계관에서 통합심리의 발달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규범적 성격’은 가장 낮은 발달 단계에 있으며 북한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은 그 다음 단계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원인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형성과정과 관련이 깊었다. ‘규범적 성격’이 가장 낮은 단계의 발달이라 추정하는 이유는 주체사상의 ‘수령관’과 ‘10대 원칙’에 의해서 유지되므로 개인의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존적인 상태는 자율적인 상태의 하위단

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율적인 상태는 통합적인 상태의 하위단계라 볼 수 있다.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규범적 성격’인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은 ‘나’ 또는 ‘우리’는 우월하며 옳고 ‘너’ 또는 ‘너희’는 열등하며 틀렸다’는 주장이 그 본질이다. 이러한 ‘규범적 성격’의 집단정체성은 사회주의 우월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집단정체성이 통합심리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낮은 단계의 발달을 보이는 것은 북한 집단정체성 형성과정과 관련이 깊다. 북한은 당이 법과 인민 위에 있고, 수령이 당위에 군림하는 체제이다. ‘10대 원칙’의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충성과 복종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김일성 독재체제로 변형되면서 충성의 대상이 사회주의 전체 인민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인 독재체제의 사회는 발달단계에서 볼 때 분화되지 못한 폐쇄적 집단의 공동체이므로 통합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북한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이다. 북한의 지도자에게 보여주었던 한민족 고유의 충성과 신뢰를 민족 전체의 것으로 바꿀 수 있을 때 한반도의 사회통합은 전망이 밝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나’, ‘우리’ 는 옳고 ‘너’, ‘너희들’은 그르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은 독재와 같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통합을 이루고 다음세대가 세계의 주역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심리 사상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보유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그들이 한반도 사회통합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원택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과 한국 민주주의』. 동아시아연구원, pp. 15-38.
- 구갑우 (2007).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후마니타스.
- 김국현 (2003).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pp. 141-183.
- 김병로 (2000).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 _____ (2015).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평화적 공존의 길.”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III-한국사회와 평화』. 한반도평화연구원, pp. 13-37.
- 김영주 (2010).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담론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창희 (2013).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pp. 187-211.
- 민성길 (1998).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문화 충격 및 적응 문제.” 『통일 이후』. 제1권, pp. 69-106.
- 민성길·전우택 (1995).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pp. 39-73.
- 박영호 (1994).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박종일·김은정 (2008). “‘집단정체성(group identity)’ 연구에서 ‘근원주의(essent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검토: ‘민족’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3권, pp. 309-323.
- 배규한 (2000).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논집』. 11권. 1호, pp. 364-368.
- 손기웅 (2007).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통일연구원.
- 양해리 (2014). “한국 시민사회의 통일운동조직에 관한 연구 -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14 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pp. 85-86.
- 오경섭 (2013). “10대 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세와 정책』. 제9권, pp. 12-14.
- 윌리엄 프란케나 (1987). 『교육철학』. 이정민·신현태 역. 이문출판사.

- 윤철기 (2014). “독일 ‘내적 통합’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현대북한 연구』. 제17권. 제2호, pp. 9-43.
- _____ (2016).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2호, pp. 155-189.
- 이기상 (2010). “지구촌 시대의 존재사건과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 『현대유럽철학 연구』. 제24권, pp. 1-46.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이현주 (2011a).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b). “북한 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pp. 291-325.
- _____ (2012).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pp. 135-171.
- _____ (2013). “북한 주민의 정치적 분리와 불안.”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pp. 147-177.
- _____ (2015a). “탈북청소년과 미래세대의 통합.” 『제11회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자료집』. DMZ학술원, pp. 77-94.
- _____ (2015b).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 연구.” 『2015북한연구학회동계학술회의 자료집』. 북한연구학회, pp. 33-52.
- _____ (2016a). “북한의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pp. 277-310.
- _____ (2016b). “북한의 김일성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사회통합사상: 켄윌버의 통합사상 관점을 중심으로.” 『한반도국제포럼 2016 통일·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북한연구학회, pp. 97-115.
- 전성우 (1997).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pp. 1-44.
- 전숙자 (1997). “북한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통합의 관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통일연구원, pp. 46-77.
- 전우택 (1997a).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제36권. 제1호, pp. 3-18.
- _____ (1997b).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pp. 106-167.
- _____ (2000). “집단기억 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제5권. 제2호, pp. 179-196.

- 전우택·민성길 (1996).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도서출판 오름, pp. 35-38.
- 전태국 (2000). “사회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pp. 115-129.
- 정태연 (2000). “남북통합의 사회심리학: 사회정체감과 집단 간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2권. 제1호, pp. 268-284.
- 조한혜정·이우영 (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 조정아 외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조한범 (200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 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연구원.
- 차재호 (2001). “통일한국과 심리적 화합.” 『심리과학』. 제10권. 제1호, pp. 11-12.
- 최순중 (2014). “통일한반도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5권, pp. 283-310.
- 켄 월버 (2005). 『모든 것의 역사』. 조효남 역. 대원출판.
- _____ (2007). 『감각과 영혼의 만남』. 조효남 역. 범양사.
- _____ (2008a). 『켄 월버의 통합심리학』. 조옥경 역. 학지사.
- _____ (2008b). 『켄 월버의 통합비전』. 정찬영 역. 물병자리.
- _____ (2014). 『켄 월버의 통합비전』. 정찬영 역. 김영사.
- 콜린 고든 (1991). 『권력과 지식』. 홍성민 역. 나남출판.
- 한재만 (1994). 『김정일-인간·사상·영도』. 평양출판사.
- 현성일 (1997). “북한 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제1권. 제1호, pp. 1-47.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ondon: Polity Press.
- Lockwood, 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G. K. Zollschan and W. Hirsch (eds).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 Rogers Brubaker and Frederick Cooper (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Vol. 29. No. 1. pp. 1-47.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pp. 1-39.

2. 기타

“북한의 상급학교 진학률.” 『연합뉴스』. 2011년 3월 22일.

| 논문투고일 : 2017년 02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2월 23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3월 21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1 (2017)

**Collective Identity of Kimilsung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and Social Integ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r from the Perspective of
Ken Wilber's Integral Psychology**

Lee, Hyun-Joo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ARI)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r must be facing times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ir territory and the integration of their society. However, the South and North Koreans are at their initial stage of the preparation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One of the reasons is their lacking in their disinterested understanding of each other, caused by their mutual preoccupations formed after the division of the territory. Systematic studies about the consciousness and psychological states of South and North Koreans are so required that the unification of the peninsular and the social integration may be expedited.

In this study, collective identity of Kimilsung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in North Korea is analysed by using the perspective of Ken Wilber's integral psychology. Collective identity of Kimilsung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is presumed to keep both its voluntary characteristics, 'system loyalty' and 'system reliability' and its compulsory characteristics, 'system supremacies' and 'system predominances'. It is suggested that integration ideology for achieving the social integration is the highest development level of ideologies. Voluntary characteristics are higher than compulsory characteristics but

not reach the development level of integration ideology. The reason appears to be deeply related to the process of formation of collective identity of Kimilsung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Compulsory characteristics are of lower development level than voluntary characteristics which are formed voluntarily, because compulsory characteristics are sustained compulsorily through 'the great leader theory' and 'ten principles' and lack in the autonomy of individuals. Dependency state is subordinate to autonomy state, while autonomy state is subordinate to integration state.

For the social integration on the peninsular which is about to be unified, a high level of integration ideology should be worked out systematically into which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identity of Kimilsung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can be embraced.

- Key words: Ken Wilber, North Korean, Collective Identity, The Korean Peninsular, Social integration